

한국지역학회 회보

발행인: 이상대 편집인: 박정일, 최태림, 박윤미

주소: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82동 315호

전화: 010-6643-2159 / E-mail: krsa83@kras83.or.kr / Homepage: <http://www.krsa83.or.kr>

회원기고

호주-뉴질랜드 지역학회(ANZRSAl) 소개

올해 연구년을 맞이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약 1년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대학교 환경학부로 파견을 나오게 되었다. 오클랜드대학교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자 세계대학순위 측면에서 미국-유럽대학의 양강구도 속에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쟁력을 가진 남반구의 대학이다. 환경학부는 지리학, 지구과학(지질학), 환경과학 등의 전공이 합쳐진 학부로 환경을 중심으로 다학제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이곳에 머문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뉴질랜드는 도시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멋진 자연환경이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곳이다. 매일 20여 분 가량 귀가 때 걷는 타카푸나 해변길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하다.

뉴질랜드에는 지역학이 어떤지가 궁금했었는데 마침 우리 한국지역학회로부터 요청이 있어 이곳의 지역학 학회활동 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뉴질랜드가 속한 지역학회는 호주-뉴질랜드지역학회(Australia New Zealand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International: ANZRSAl)이다. 이 학회의 정관은 1984년에 만들어져 한국지역학회의 창립과 시기적으로 비슷하며, 세계지역학회의 조직구조 속에서도 태평양지역학회(PRSCO)에 같이 소속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 연례학술회의가 43회로 학술회의를 기준으로 유추해보면 정관설립 이전인 1970년대 후반부터 학회는 존재했었던 듯하다. 학회의 출발은 학

문적 기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정책자문전문가와 지역정책 및 사업을 실행하는 실무담당자들까지도 아우르는 응용적 성격이 특히 강하다. 학회 홈페이지 정보에 의하면, 회원구성은 학계가 25%인 것에 비해 실무분야가 50%,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25%를 차지하여 비학계 회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집행부는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회장과 2인의 부회장(호주와 뉴질랜드 각 1인), 그리고 집행부(총무, 회계, 홍보 등)와 각 권역을 대표하는 상임이사진으로 구성된다.



손 정 렬 (기초홍보대응팀 부팀장)

서울대학교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매년 일회 12월 중에 개최되며, 정부기관 후원을 받아 우수논문과 우수학생논문을 선정하여 수상한다. 올해 개최예정인 학술대회를 포함하여 최근 6년간의 학술대회 개최현황은 아래와 같다.

- 2014년 12월 1~4일(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회복중인 지역들: 연구, 실무, 정책
- 2015년 12월 1~4일(호주 시드니)
-글로벌시티와 글로벌리전: 지속가능한 미래?
- 2016년 12월 5~7일(호주 멜버른)
-미래를 향하여: 지역정책과 실행에서의 우선순위
- 2017년 12월 6~8일(호주 터움바)
-지역회복력, 참여, 혁신의 촉진
- 2018년 12월 5~7일(호주 캔버라)
-지역개발: 정책, 연구,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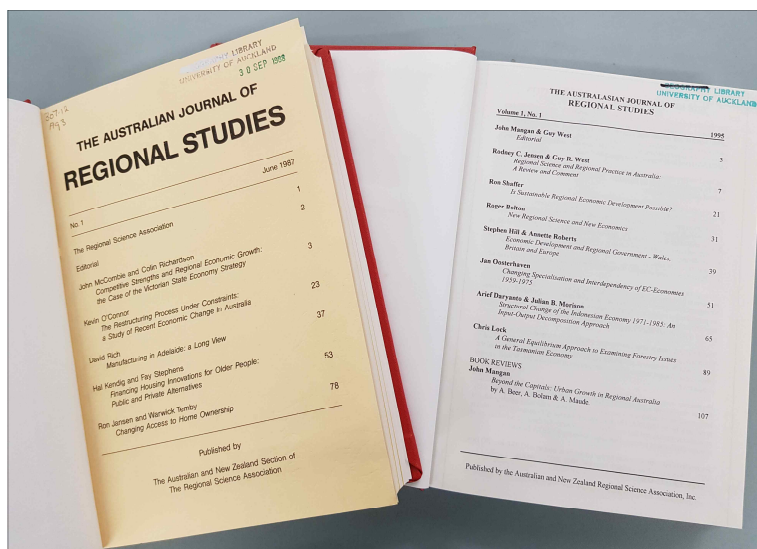
- 2019년 12월 4~6일(호주 케언스)
-성장을 위한 협업; 지역개발의 혁신과 붐

이곳 학회에서는 학술지 Australasi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AJRS)와 학회 소식지 Sustaining Regions, the newsletter of ANZRSAI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AJRS는 초기인 1987년 1권부터 1994년 8권까지는 Australi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이후 세계지역학회 호주-뉴질랜드 지부(section)가 호주-뉴질랜드 지역학회로 그 명칭이 바뀌고 뉴질랜드의 참여학과 국제 학술네트워크의 강화 차원에서 1995년 Australasi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라는 새 이름의 학회지 1권 1호가 새로이 발간되었다. 매년 3회 발간되는 이 학회지는 현재 25권까지 발간되었다. 학회지의 주요 관심대상은 호주 및 국제 지역이슈들을 다루되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학회지는 지역분석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역분석, 정책, 실행, 개발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소식지의 경우, 애초에는 소식지 기능만 있는 Newsletter와 논문 심사과정이 없이 게재되어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와 논의가 실리는 Sustaining Regions가 분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1년 이 둘은 통합되어 현재의 소식지 Sustaining Regions, the newsletter of ANZRSAI가 탄생되었다. 1년에 3회 발간되는 이 소식지는 학회소식과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을 함께 실어 풍성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최근호인 9권 2호(올해 7월 발간)의 경우 그 분량은 20쪽에 이른다. 다만 애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연구논문이 여기에 실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현재 학회장은 찰스다윈대학교의 Rolf Gerritsen교수가 맡고 있다. 부회장단은 호주부회장과 뉴질랜드부회장 각 1인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집행부 임원(executive officer, secretary, treasurer, public officer)은 4명, 상임이사 8명으로 임원진이 구성된다. 학회지의 경우 수석편집위원장으로 시드니공과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의 Bligh Grant교수 외 3인의 위원장이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석학들이 포함된 국제적인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호주-뉴질랜드지역학회에 관심이 있는 회원은 학회 홈페이지(<https://www.anzrsai.org/>)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회지 1호(1987)와 Australasi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라는 새 이름으로 발간된 1권 1호(1995)



Join us at our 43rd Annual Conference
CAIRNS, 4-6 DECEMBER 2019

**WORKING TOGETHER TO GROW:
INNOVATIONS AND DISRUPTIONS IN
REGIONAL DEVELOPMENT**

SECOND CALL FOR PAPERS

For more than 40 years, the Australia and New Zealand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ANZRSAI) has brought together researchers, practitioners and policy advisers to explore the cutting edge of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analysis in Australia, New Zealand and around the world. If your work involves regions, please join us for our 43rd Annual Conference in Cairns, Queensland.

The CQ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nd Law is hosting the conference at the CQUniversity Cairns Campus. ANZRSAI welcomes proposals for contributed papers, for themed panels, or for special sessions, on any topic related to regions. To register and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onference, visit the ANZRSAI website at:

www.anzrsai.org







2019년 연례학술대회 논문모집안내문

회원기고

[2019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지역혁신과 지역균형발전에 열띤 논의

지난 9월 26일 순천 국가정원에서서는 2019 균형발전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한국지역학회와 한국지역경제학회의 공동세션이 있었는데, 지역혁신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세편의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목한 박사(서울연구원)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가 지역경제의 혁신과 성장에 주는 함의와 이에 따른 도시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우버, 에어비엔비, 텐센트 등 강력한 플랫폼 기업들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들 기업이 지역경제의 혁신과 성장 미치는 함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발표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지역적 집중에 주목하였다. 플랫폼 경제는 도시경제에 기회이자 위협도 될 수 있기에 플랫폼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도시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었다.

두번째 발표자인 이준근 교수(경일대)는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하여 비수도권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수도권의 보다 훨씬 크고(다만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있음)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준근 교수의 연구는 광역경제권별로 고용, 생산, 부가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세밀하게 비교·분석하였다.



구 교 준 (연구출판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마지막 발표자인 김우석 박사(전북연구원)는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저출산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특히 김우석 박사는 현재의 프로젝트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저출산 시대에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에 잘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와 인구추계를 고려한 균형발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지역학회 이상대 회장이 좌장을 맡았는데, 강동희 교수(군산대), 구교준 교수(고려대), 임윤택 교수(한밭대), 조성철 박사(국토연구원)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세 편의 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탰다. 우선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경제가 가지는 의미와 플랫폼 경제의 법적 제도적 문제, 이로 인한 양극화문제와 분배적 함의, 플랫폼으로 인해 도시가 가지는 기회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의 최적 입지결정과 지역수준에서의 파급효과 간의 괴리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파급효과는 비수도권이 더 큰 것에 비해 민간 기업은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역할도 함께논의되었다. 저출산과 균형발전 이슈에 있어서는 기술의 역할에 대

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지역 간 격차가 저출산으로 더 심화될 것인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이 그 충격을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플로어의 청중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션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마무리 될 수 있다. 이번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서의 한국지역학회 세션은 의미 있는 주제와 열띤 토론이 돋보이는 자리였다.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한국지역학회 세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 인구정책 관련 연구 동향

회원기고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히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인구감소는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소멸" 개념은 인구감소의 심각성이 지역별로 차별적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도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배경적 틀이 지역임을 상기할 때, 인구정책과 지역 간 불가분성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역적 측면에서의 인구정책 혹은 인구정책 연구는 양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인구정책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인구 분산정책은 지역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정책의 특성을 담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지금까지 고령인구, 가족정책, 아동, 저출산/고령화 부문에서의 연구는 양적으로 지속 수행되어 정책에 두루 반영되어 왔지만, 지역 관점을 견지한 연구는 양적으로 다소 미진한 감이 있다.

다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감소가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단위의 인구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상림 외(2018)¹⁾의 연구는 지역단위의 인구감소가 인구변동의 주요 요인인 인구이동에 강하게 기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저출산, 고령화에 초점을 둔 정책이 인구감소에 대응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이 연구는 개별지역의 낙후양상에 대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구도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역 내 산발적인 불균형의 양상과 이것의 주요요인인 다양한 유형의 인구이동에 주목한다. 이에 현재의 수도권 집중완화 혹은 지역개발 정책보다는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 간 연대를 강조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역측면에서 인구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연구과제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는 인구이동-지역경제 불균형의 동태적 연관성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 간 인구이동은 특정지역의 인구 수(양적)와 인구구조(질적)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며, 지난 50여간 우리나라 지역 간 인구이동은 경제성장과 도시성장의 과정에서 시대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압축개발 및 산업화는 도-농간 인구 및 인프라 불균형을 양산하였는데 이것은 지역간 인구이동과 큰 연관성이 있다. 약간 시각을 달리하면, 이러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도시의 성장, 그리고 결과적 양상으로서의 경제성장 패턴은 일방이 아닌



장 인 수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쌍방의 특징을 띠고 있으며, 적절한 내·외적 기제가 작용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띠고 있는 여러 특징 중 지역격차를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경제개발의 기조와 맞물린 지역 간 인구이동에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 간 인구이동은 시기별로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다양한 특징을 보이며, 지역경제 불균형을 야기한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지역 간 인구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조응한다는 것이므로, 보다 다차원적이고 지속적이며 유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인구이동 간의 동태적 연관성을 역사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가진다. 지금까지 꾸준히 다양한 학문영역(경제학, 도시공학, 지리학, 사회학 등)에서 사회적 과제로서 주목한 지역 간 인구이동-지역 불균형 간의 관계는 어떠한 형식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가? 또한 각각의 학문이 주목하는 이들 간 연관성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를 시의성에 부응하며 보다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의 양상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이상림, 이지혜, Bernhard Köppen, 임소정, 성백선. (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20.

학회소식

2019년 7월~9월

 2019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한국지역학회-한국지역경제학회 공동 특별세션 개최

지난 9월 26일~27일 개최된 「2019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서 한국지역학회-한국지역경제학회 공동 특별세션이 ‘지역혁신경제와 지역혁신체계의 재구조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 일시: 2019년 9월 26일(목) 오후 10:50~12:40
- 장소: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전남 순천만국가정원)
- 주제: 지역혁신경제와 지역혁신체계의 재구조방안
- 발표 및 토론:
 - 발표1: 지역혁신의 요인: 플랫폼 경제 (김목한, 서울연구원)
 - 발표2: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적 유발효과 분석 (이춘근, 경일대학교)
 - 발표3: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김우석, 전북연구원)
 - 좌장: 이상대 (한국지역학회장)
 - 토론: 강동희 (군산대), 구교준 (고려대), 임윤택 (한밭대), 조성철 (국토연구원)

 2019년 제3차 상임이사회 개최

2019년 제3차 상임이사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 일시: 2019년 8월 26일(월) 오후 7시
- 장소: 서울역 명가의 뜰
- 참석자: 이상대, 임업, 박인권, 박정일, 도수관 (총 5명)
(위임자: 윤동근, 박원석, 하수정, 구교준, 이창근, 김승남, 김태형, 김목한, 최태림, 김호연, 강상준, 총11명)
- 주요안건 및 결정사항:
 - 학회운영보고 (총무위원회)
 - [지역연구] 9월호 발간 보고 (편집위원회)
 - 학회회보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기획위원회)
 - 추계학술대회 일정 및 장소 논의

「지역연구」 2019년 12월호 논문모집

학회지 편집위원회(위원장: 마강래, 부위원장: 전희정)에서는 「지역연구」의 2019년 12월호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방법: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이용(krsa83.or.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투고)
- 접수기간: 2019년 10월 1일 ~ 12월 8일
- 안내 및 유의사항
 - 2019년 9월호부터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논문시스템을 이용 바랍니다.
 - 학회지 편집규정 및 윤리규정을 숙지하신 후 투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투고 논문은 심사료와 게재료를 학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고를 바랍니다.
- 22월 중순 이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 및 편집일정 상 12월호 게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2월호 게재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늦어도 12월 초까지 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연구재단에서 학술지평가가 진행 중입니다(평가결과는 10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지역연구」가 등재후보지가 되면 2019년 게재된 논문은 모두 등재후보지논문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논문투고 문의
 - E-mail: krsa1983@gmail.com
 - 핸드폰: 010-2621-1158 (강정구), 010-2214-4781 (박준범)

2019 후기 학술대회 참가논문접수

2019년 후기학술대회 참가논문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 바랍니다.

- 학술대회 일정
 - 개최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13:00
 - 개최장소 : 서울연구원
 - 주요행사 : 정책라운드테이블, 일반세션, 대학원생세션,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시상, 저녁만찬
- 참가신청 및 논문접수
 - 참가신청 및 논문초록 마감 : 2019년 10월 25일(금)
 - 발표논문 최종본 제출 마감 : 2019년 11월 22일(금)
 - 접수방법: 학회 홈페이지(<http://kras83.or.kr/>) > 학술행사 > 참가접수에서 신청

※ 이번 학술대회부터 학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학술대회 문의: 학술위원장 김태형(krsa.tgim@gmail.com),
학술부위원장 김동현(donghyun-kim@pusan.ac.kr)

학회 법인명의 연락처(010-6643-2159) 개통

우리 한국지역학회에서는 법인 명의의 전용 연락처를 만들었습니다. 사무와 일반행정에 관련한 문의나 전달사항이 있으시면 전용연락처(010-6643-215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규회원가입

· 일반회원

성명	소속
박서연	경기연구원
김별아	서울대학교(대학원생)

· 평생회원

성명	소속
박인권	서울대학교
박정일	계명대학교

회비납부 홈페이지 카드결제 가능

학회 홈페이지 카드결제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회비납부(연회비/이사회비/논문심사비/학회참가비 등)를 원하시는 분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전자결제 시스템(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을 통해 납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연회비 및 이사회비

구분		금액
개인회원	입회비	1만원
	일반회원	4만원
	준회원(학사 학위자 및 석사과정 재학)	2만원
	평생회원	50만원
단체회원	일반기관(연구원, 회사, 기타)	30만원
	교육기관(학교, 도서관)	10만원
이사회 기부금 (연회비 미포함)	회장	50만원
	부회장	30만원
	임원진(상임이사 및 감사, 고문)	10만원
	일반이사	10만원